

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
Year

SUPERVISOR TO ATTACH PROCESSING LABEL HERE

STUDENT NUMBER Letter

KOREAN
FIRST LANGUAGE
Written examination

Day Date

Reading time: *.*.* to *.*.* (15 minutes)

Writing time: *.*.* to *.*.* (2 hours)

QUESTION AND ANSWER BOOK

Structure of book

<i>Section</i>	<i>Number of questions</i>	<i>Number of questions to be answered</i>	<i>Number of marks</i>
1	1	1	20
2	1	1	20
3	2	1	25
			Total 65

- Students are permitted to bring into the examination room: pens, pencils, highlighters, erasers, sharpeners, rulers and any printed monolingual and/or bilingual dictionary in one or two separate volumes. Dictionaries may be consulted during reading time and also during the examination.
-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bring into the examination room: blank sheets of paper and/or correction fluid/tape.
- No calculator is allowed in this examination.

Materials supplied

- Question and answer book of 17 pages, including **assessment criteria** on page 17

Instructions

- Write your **student number** in the space provided above on this page.
- Write all your answers in the spaces provided in this question and answer book. The spaces provided give you an idea of how much you should write.

Students are NOT permitted to bring mobile phones and/or any other unauthorised electronic devices into the examination room.

THIS PAGE IS BLANK

DO NOT WRITE IN THIS AREA

SECTION 1 – Reading, listening and responding

Instructions for Section 1

Texts 1A and 1B, Question 1 (20 marks)

This section of the examination consists of a reading text, Text 1A, and a related listening text, Text 1B. You will hear Text 1B. The text will be played twice. There will be a short break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layings of the text. You may make notes at any time.

Answer the questions in KOREAN. Questions may relate to either Text 1A or Text 1B, or to both texts. Your responses must be based on the texts.

TEXT 1A

미나리 할머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다!

할머니: 할머니가 한국에서 미나리 씨 갖고 왔다. 저기랑 저쪽에다 심으면 좋겠다.

영화 <미나리> 속 할머니의 대사이다. 아칸소 시골로 간 한인 이민 가정의 정착 과정을 다룬 이 영화는 일곱 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한 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미나리풀을 옮겨 심은 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서로 의지하고 다독이며 희망을 일구어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 내는데, 특히 딸을 돕기 위해 미국에 간 한국 할머니의 심금을 울리는 연기가 아카데미에서 호평을 받았다.

할머니: 아이구 미나리가 잘 자라네!

데이빗아, 너는 미국서 나서 미나리 먹어본 적 없지?

미나리가 얼마나 좋은 건데...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다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들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미나리는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미나리는 아플 때는 약도 되고 ... 미나리는 윈더-풀 윈더-풀이란다!

손자: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윈더풀 윈더풀 미나리

할머니: 어, 그래. 윈더풀 윈더풀 미나리! 미나리 노래야? <영화 ‘미나리’ 중에서>

‘윈더-우먼, 윈더-랜드, 윈더-걸스’의 ‘윈더-’를 한국어 단어 ‘풀’ 앞에 사용한 의미를 이해하는 관객이라면, 이 장면에서 감독의 재치 있는 의도에 감탄을 하게 된다. 영어가 서툰 할머니와 영어에 익숙한 손자가 주고받은 ‘미나리는 윈더-풀’과 ‘윈더풀 미나리’란 대사는 일종의 문학적인 언어 유희를 가진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다른 언어로도 같은 공감을 자아내는 가능성이 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한국 정서를 담은 한국어 대사의 영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데도 일조한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고 한 말을 <미나리>가 고스란히 입증한 셈이다.

DO NOT WRITE IN THIS AREA

You may make notes in this space for Text 1A and Text 1B. These notes will **not** be assessed.

DO NOT WRITE IN THIS AREA

Write your responses to Question 1 on the following pages.

SECTION 1 – continued

Question 1

a. 할머니의 대사 속에 나오는 ‘미나리’가 지닌 속성과 이민자의 삶의 연관성을 서술하시오.

3 marks

b.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와 ‘원더풀 미나리’라는 대사가 갖는 중의적인 해석과 그것을 통한 감독의 의도를 설명하시오.

4 marks

DO NOT WRITE IN THIS AREA

- c. Text 1A에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을 영화 <미나리>가 입증했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근거를 Text 1B에서 찾아 분석하시오.

5 marks

DO NOT WRITE IN THIS AREA

d. Text 1A와 Text 1B를 토대로 ‘한국 영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아카데미 역사를 다시 쓰다’라고 평가받은 근거를 모두 제시하시오.

8 marks

DO NOT WRITE IN THIS AREA

SECTION 2 – Reading, listening and creating text

Instructions for Section 2

Texts 2A and 2B, Question 2 (20 marks)

This section of the examination consists of a reading text, Text 2A, and a related listening text, Text 2B. You have three minutes to read Text 2A.

At the end of the three minutes, Text 2B, the listening text, will be played. The text will be played twice. There will be a short break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layings of the text. You may make notes at any time.

Answer the question in approximately 800 *cha* in **KOREAN**.

Your response **must** be based on both texts.

TEXT 2A

선한 사마리아인의 부재

‘나는 15층에서 1층을 향해 중국집 배달원처럼 달려내려갔다. 5층을 지나가면서 보니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채로 6층과 5층 사이에 걸쳐 있었고 엘리베이터 아래로 사람의 다리 두 개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때 내 앞으로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바빠 나를 밀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말쑥한 신사복을 차려 입은 그들은 출근 중이었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끼여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무심히 지나치다니. 하지만 나 역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김영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문학과 지성사, 서울, 2008, 102쪽>

위 소설은 현대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인간 소외현상으로 인해,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음에도 무심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각박한 현대인들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이러한 방관자 효과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 타인의 응급 상황에 자신이 위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에 이르렀다. 즉, 도덕적 의무 이행만으로는 상실된 인간성 회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혹자는 이웃 돕기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근거하므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1997년 영국 다이애나 비의 프랑스 교통 사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느라 적극적으로 구조에 임하지 않은 파파라치의 행위는 그들을 프랑스 형법에 규정된 구조불이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들끓게 했다.

한국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이웃 상점 주인의 소화기 대여 요청을 두 번이나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방관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자신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이행하지 않는 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의식의 고취가 시급함을 반증한다. 일각에서는 법으로 강제하면 정이 없는 삭막한 사회를 초래할 것이라고 염려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웃과 상부상조했던 조상들의 아름다운 얼과 전통이 사라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과연 당신의 내일은 안녕한가.

독자 박범규

DO NOT WRITE IN THIS AREA

You may make notes in this space for Text 2A and Text 2B. These notes will **not** be assessed.

DO NOT WRITE IN THIS AREA

Write your response to Question 2 on the following pages.

SECTION 2 – continued
TURN OVER

SECTION 3 – Writing in Korean**Instructions for Section 3****Questions 3 and 4 (25 marks)**

Answer **one** question in approximately 1100 *cha* in **KOREAN**.

Space is provided on the following page to make notes.

Question 3

대한민국은 현재 모든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의 하나로, ‘그린(green)급식의 날’을 정하여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한 달에 두 번 채식급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바람직한 ‘그린급식의 날 정착’을 위한 자신의 의견을 교육부 관계자에게 편지글로 쓰시오.

OR

Question 4

당신은 빅토리아주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백일장 행사에 참여한다. 아래 사진을 바탕으로 본 행사에 출품할 상상글을 쓰시오.



Source: Natalia Kirichenko/Shutterstock.com

DO NOT WRITE IN THIS AREA

You may make notes in this space. These notes will **not** be assessed.

DO NOT WRITE IN THIS AREA

Write your response on the following pages.

SECTION 3 – continued
TURN OVER

Assessment criteria

Section 1 – Reading, listening and responding

- the capacity to understand general and specific aspects of texts
- the capacity to identify and integrate relevant information and ideas from the texts
- the capacity to convey information accurately and appropriately

Section 2 – Reading, listening and creating text

- the capacity to identify, integrate and synthesise relevant information and ideas from the texts
- appropriateness of structure and sequence
- accuracy, range and appropriateness of vocabulary and grammar (including punctuation and, where relevant, script)

Section 3 – Writing in Korean

- relevance, breadth and depth of content
- appropriateness of structure and sequence
- accuracy of vocabulary and grammar (including punctuation and, where relevant, script)
- range and appropriateness of vocabulary and grammar

DO NOT WRITE IN THIS AREA

Transcript

SECTION 1 – Reading, listening and responding

TEXT 1B

- 진행자: 영화 평론가 공영화 씨와 함께 한국 영화의 현주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공영화: 네, 아시다시피 2020년에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데 이어 2021년에 배우 윤여정씨가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서 한국인의 예술적 감성과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지요. 이러한 성과들로 한국 영화계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며 그 위상이 높아진 후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영화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세계 영화사에 획기적인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까지 받던데요.
- 공영화: 그렇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무려4개의 상을 휩쓸면서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비영어 영화 작품상 수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시상식 발표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뜨거운 반향을 일으킨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카데미가 92회 시상식을 맞는 동안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최우수작품상을 단 한 번도 아시아 영화가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만연해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 한국 사회를 투영한 <기생충>이 ‘아시안’으로서 당당히 첫발을 내디뎠던 것이지요.
- 진행자: 영화 <미나리> 열풍 역시 대단했지요?
- 공영화: 맞습니다. <기생충>의 열기에 이어 배우 윤여정 씨가 102년 한국 영화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것은, 언어와 인종의 벽을 다시 한번 넘은 쾌거로 불릴 만합니다. 특히 평론가들은 한국어로 된 연기에 대해 아카데미가 연기상을 줬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미나리>가 비영어권 영화를 홀대해 온 아카데미상의 기조마저 수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을 정도니까요. 언어의 벽을 넘어서 모든 관객의 마음을 울린 ‘한국 할머니’의 정서가 성공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한국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공영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문화의 변방이 아닙니다. 아카데미의 역사를 바꾼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인정받은 작품들 덕분에 우리 영화의 세계 무대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지금, 더욱 한국적이면서 뜻깊고 호소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100여 년 한국 영화 산업계의 당면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ECTION 2 – Reading, listening and creating text

TEXT 2B

아나운서: 청취자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아시나요? 원래 이 법은 한 나그네가 여행 중에 강도를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돕지 않고 지나쳤지만 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성서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와 유사하게 일반인이 응급 상황의 환자에게 응급의료나 처치를 제공하다가 재산상 손해와 사상이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응급의료법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도와주고도 누명을 쓸까 봐 구조를 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실정인어서 구조불이행죄 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급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요. 도덕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착한 사마리아인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캘리포니아의 이민진 기자 나와 주세요.

이민진: 도덕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착한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마트에서 결제를 하지 못하고 있자 뒤에 있던 한 청년이 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대신 결제해 주면서, 되갚지 않아도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후, 또 다른 사람을 돕다가 사망한 그 청년의 소식을 접하게 된 여성은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만들어 청년의 선행을 알리고 곤경에 처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세상에는 작은 날갯짓으로 선한 나비효과를 일으키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을 훈훈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진이었습니다.